

#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에 나타난 자유주의 담론의 형성과 전개

윤상현\*\*

유교적 담론과 공화 개념의 접속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대한제국기 언론매체에 등장한 '자유주의' 개념의 수용과 전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자유주의가 단지 서구에서 수입된 정치 이념이 아니라 대한제국기 조선 지식인들의 윤리적 세계관과 정치 현실 인식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는 1900년대에 러시아제국 내의 개혁 보도를 통해 전제 권력에 대한 저항, 농민해방, 약자에 대한 관용과 공정성, 상향식 자치제도 등 공화(共和)적인 자유 개념과 접속된 형태로 소개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는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은행·교육·언론의 자유 등 제도 영역에서 국가 개입 최소화의 원리로 적용되었다. 특히 당대 자유주의는 단순한 제도적 논리를 넘어, 기독교의 천부인권 사상과 유교의 도심 수양론과 결합하며 도덕적·종교적 자유주의로 재해석되었다. 유교 경전을 통한 자유 개념의 해석은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리론이라는 전통적 담론 구조의 제약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한편 유교적 세계관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적 천관(天觀)이 충돌 없이 융합되는 독특한 사상적 특성을 나타냈다. 1907년 이후 공화 담론의 부상과 함께 자유주의는 민권·자치·대의제와 같은 제도적 요구뿐 아니라, 도덕적 시민성과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가치와 결합되었으며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상상력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권리 담론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의무와 공공선 실현을 강조하는 리버럴리티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식민지화 위기라는 집단적 경험은 유교적 공동체 의식과 서구 자유주의 전통 속에 내재된 공화적 가치들 간의 사상적 접속을 촉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내부의 평등보다는 민족적 자주와 공동체적 실천을 중시하는 한국적 자유주의의 특수성이 형성되었다.

**주제어** 자유주의, 공화주의, 유교, 기독교, 리버럴리티

\* 이 연구결과물은 2022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 1. 머리말: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과 공화적 접속 가능성

자유주의는 다양한 정의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정치체제가 근대 세계를 주조한 주요 구성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최근 자유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자유주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논의가 점차 축적되고 있으나, 한국 자유주의의 사상사적 전개는 여전히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한국 자유주의의 개념 형성과 수용 양상을 재조명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자유주의 연구들은 개념의 규범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요소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개화기 자유주의의 수용에 관한 연구는 ‘문명’에 대한 실용적 인식과 군주의 권한 제한이라는 정치적 필요를 중심으로, 자유주의가 민권 보다는 제한정부·입헌군주제와 관련된 통치 원리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았다.<sup>2</sup> 다른 연구는 한말 일본 유학생들이 ‘자유’와 ‘권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헌정치와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갔으나 국권상실의 현실 속에서 민족주의적 저항과 식민지 순응이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분화되었다고 보았다.<sup>3</sup> 또한 1900년대 언론에 관한 연구는 ‘자유’ 개념이 권리, 문

1 헬레나 로젠블랫(2023), 김승진 역,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공동체의 도덕, 개인의 윤리가 되다』, 니케북스(Rosenblatt, Helena, *Lost history of liberalism: from ancient Rome to the twenty-first century*); 강명희(2021),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 김석근(2011), 「개화기 ‘자유주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1.

3 노상균(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7.

명, 독립 등과 연결되며 점차 소극적 자유(국가나 타자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참여와 권리 주장)로 확장되는 과정을 개념사적 관점에서 추적하였다.<sup>4</sup>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체로 자유주의를 이미 어떤 이념형으로 전제하거나, 서구의 자유주의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 역동적인 담론이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어떠한 담론 지형과 세계관 속에서 의미화되었는지, 또한 다른 사상들과 어떤 경합과 접속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 글은 전통시대 이후 새로운 서구 사조들이 유입되던 대한제국기 사상계를 주목하여, 전통사회에서 이어져 온 영향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서구의 자유주의가 달성해야 할 하나의 이상체이거나 그것을 언제 달성했느냐 하는 접근법보다는 비서구 사회인 동아시아 한국에서 서구 사조들이 수용될 때 어떤 변용이 일어났는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의 공통적 성격이 있었느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한국이라는 담론 지형에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차별성이 있다면 이를 아직 서구적 자유주의 완전체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당대의 담론적·맥락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대한제국기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라는 사상은 완결된 서구 근대 정치 이념의 수입 과정으로 이해되기보다, 당대 지식인들의 종교적·도덕적 세계관 속에서 독특하게 해석되고 수용된 측면이 강했다. 특히 유교적 도덕론과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이질적인 사상적 기반 위에서 자유주의는 현실 정치 질서에 대한 자각과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수용은 자신들의 지적 체계와 세계관 속에서 그것을 도덕적 가치로 정당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질서를 모색하는 복합적인 과정 속

4 김중준(2019), 「1900년대 한국 언론의 '자유' 이해와 용법」, 『인간연구』 38.

에서 전개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대한제국기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수용되고 개념화되었는지를, 당대 언론매체에 나타난 ‘자유’, ‘자유주의’, ‘공화’, ‘공화주의’라는 표현의 사용과 맥락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일간지를 중심으로 『태극학보』, 『공립신보』 등의 논설문과 시론, 번역 기사 등을 분석하고, 이들 개념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당대 유교적 가치·기독교 윤리·민족주의적 담론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당대 언론매체의 번역기사는 현재와 달리 단순한 해외통신의 번역에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를 취한 기사들이 다수 있으며 해외의 역사와 사례들을 현재에 ‘효칙’할 수 있는 교본으로 삼는 유교적인 지적 태도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sup>5</sup>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에 나타난 ‘자유주의’ 관련 용례들을 수집·분석하여, 개념의 도입과 정착이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추적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1880년대와 1890년대를 대상으로, 자유주의 개념의 ‘전사’(前史)적 용례와 언어적 지층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개념화 이전의 수입어 용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1900년대 자유주의 담론 형성의 기초 층위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1900년대에 들어서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매체에 등장한 이후, 그 개념적 성격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경향적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1900년대 전반기(1900~1905년)를 중심으로, 자유주의가 주로 러시아제국 사례 소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입헌주의, 교육과 은행 제도 등의 ‘근대적 기구’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논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조명한다. 이 시기의 담론에서는 ‘천부인권’, ‘자유권’, ‘평등’ 등의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단순

— [www.kci.go.kr](http://www.kci.go.kr)  
5 「自作學은 不可道」, 『황성신문』, 1906년 11월 22일 “驗之古事호고 質之現世호니”

한 제도 수용 차원을 넘어 유교적 도의(道義)에 의거한 도덕적 정당성 부여를 동반했다. 이러한 유교적 종교 담론을 통한 수용의 담론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1908년 전후 정국의 급변 속에서 자유주의가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체제 구상, 특히 민권·자치와 관련된 언어들과 결합되어 사상적 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는 자유주의 개념의 종교적·윤리적 승화, 그리고 공화적 정치체제 구상과의 접속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당시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사상사적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 2. 1880-90년대 자유주의 용어의 초기 수용 양상

1886년 『한성주보』에는 ‘자유주의’ 개념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스페인, 영국, 일본, 독일의 ‘자유당’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있다.<sup>6</sup> 일본 자유당을 갑신정변의 김옥균과 연상하여 경계하는 기사가 있으며,<sup>7</sup> 이들을 왕정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895년 김홍집내각의 법무 대신 서광범은 조정에 탁지부대신 어윤중, 외무대신 김윤식, 총리대신 김홍집의 대원균파가 있고 이들과 달리 ‘자유주의’자(Liberals) 또는 공중파인 자신과 내부대신 박영효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sup>8</sup>

『독립신문』에는 외국의 자유당을 전하는 것 외에도, “즈기 권리와 즈기

6 「西王病疽」, 『漢城周報』, 1886년 1월 25일; 「日本近滋」, 『漢城周報』, 1886년 1월 25일; 「日女結援玉均」, 『漢城周報』, 1886년 2월 1일; 「日本近信彙報」, 『漢城周報』, 1886년 2월 22일; 「日本彙報」, 『漢城周報』, 1886년 7월 5일; 「民心蠢動」, 『漢城周報』, 1888년 1월 23일.

7 「日女結援玉均」, 『漢城周報』, 1886년 2월 1일.

8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3, 1895년 2월 13일. 서광범(1859~1897)은 개화당 일원으로 갑신정변후 미국에 망명해서 「조선교육론」 등을 개제했고 재판소구성법·법관양성소규정 등을 공포하고 참정 대신 교수형 제도를 채택했던 인물이다.

나라 권리”라 하여 ‘권리’라는 개념어와 ‘자유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sup>9</sup> 또한 관원 및 관인이 침범한 것에 대항하여 시비할 수 있는 백성의 무리를 ‘자유당’으로 칭하는 일화도 등장한다.

기화헌 나라에서들은 빅성이 권이 잇서 관원들이 무리흔 일을 흐면 빅성이 시비 흐는 권리가 잇는디 조선서는 빅성을 관인이 무리 흐게 침범 흐야도 빅성이 아모 말도 못 흐게 되얏스니 이거슬 바르게 흐라면 민권이 성흐여야 홀지라 그런 고로 우리가 즈유당을 모홀터이니<sup>10</sup>

제물포의 광일이란 사람이 개화한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권리가 있어서 관원들이 부당한 일을 하면 백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백성들이 아무 말 못 하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권을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자각을 한 사람들을 ‘자유당’이라고 자칭하였다. 전통적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권리’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권리와 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유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11</sup> 또한 영국 ‘자유당’ 총리에 관해서 ‘공평 정직한 정병(政柄)을 확실히 지키고 참작 손익 하는 권형(權衡)을 굳게 잡고, ‘국가기업을 반석같이 공공하게 하여’ ‘문명하고 부강하게 하’는 것, ‘세계 만국의 통상조약을 정하고 세계가 평화롭게’ 한다고 소개하였다.<sup>12</sup> 영국 ‘자유당’을 공평 정직하며 공공성을 가지고 국가기업을 문명하고 부강하게 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9 「내 나라 사름을 내가 천대 흐고」, 『독립신문』, 1897년 11월 9일.

10 「제물포 광일이란 사름이 빅성의게 통문 흐되」, 『독립신문』, 1896년 10월 6일.

11 한자문화권에서 ‘권리’의 개념사에 관해서는 윤상현(2024), 「천부인권 개념의 수용과 변용-학지광을 중심으로」, 『동방학』 50; 윤숙현(2020), 「清末民初 ‘民權’ 개념의 변화: ‘天賦人權’에서 ‘國民權’으로」, 『역사학보』 248 참조.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 개념에 관해서는 이나미(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참조.

12 「어느나라이턴지총리대신은정부에 데일임디 흐고칙중흐야우호로논」, 『독립신문』, 1899년 11월 3일.

『협성회회보』와 『매일신문』에는 일본 자유당 세력의 동향을 전하고 있으며,<sup>13</sup> 『황성신문』에는 독일, 영국, 일본 ‘자유당’의 행보가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다.<sup>14</sup>

이처럼 1880~1890년대 한국 언론매체에서는 ‘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주로 ‘자유당’, ‘리버럴’, ‘민권’, ‘권리’ 등의 표현을 통해 서구 자유주의 정당과 정치 체제를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용례들은 이후 ‘자유주의’ 개념이 본격화되는 1900년대 담론 형성의 전사(前史)로 기능하였다. 특히 당시 자유의 개념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관의 간섭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백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에서 민권 개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언어적 지층은 이후 본격적인 ‘자유주의’ 수용과 담론화 과정에서 사상적 정당성과 개념의 확장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세력으로서 자유당이 아닌, 관념으로서 ‘자유주의’가 최초로 등장하는 1901년 『황성신문』 기사를 포함하여 1900년대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에 등장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 장의 표와 같다.

1900년대 ‘자유주의’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주로 등장하며, 국내 학회지로는 『대한자강회월보』에서 그리고 유학생잡지에서는 『태

13 「일본 기진당들이 자유당과 합하기를 조아아니하미, 『협성회회보』, 1898년 1월 22일; 「일본 하의원 의원들을 삼월십오일에 선거하였는디 자유당이, 『매일신문』, 1898년 4월 11일; 「일본 자유당 두목들이 일전에 회의하고, 『매일신문』, 1898년 4월 29일.

14 「德國의 議員選舉, 『황성신문』, 1898년 9월 9일; 「倫敦八月二十六日發, 『황성신문』, 1898년 9월 12일; 「日本政黨分裂新內閣組織, 『황성신문』, 1898년 11월 11일; 「英國前自由黨總理, 『황성신문』, 1899년 5월 18일; 「對外國問題, 『황성신문』, 1899년 6월 8일; 「藤侯와 自由黨, 『황성신문』, 1899년 6월 21일; 「트란스발 事와 英國經濟, 『황성신문』, 1899년 9월 27일; 「日艦進水式, 『황성신문』, 1899년 10월 7일; 「德國議會와 海軍擴張案, 『황성신문』, 1899년 11월 16일; 「英國이 屬望美國, 『황성신문』, 1899년 11월 18일; 「英國의 對淸政策, 『황성신문』, 1900년 5월 4일; 「或寬或虐, 『황성신문』, 1900년 5월 19일; 「日廷近況, 『황성신문』, 1900년 6월 11일; 「山縣辭職의 由, 『황성신문』, 1900년 10월 17일; 「英國自由黨의 分裂, 『황성신문』, 1901년 6월 29일.

[표 1] 1883-1910년 신문 잡지 매체의 '자유주의'·'자유당' 빈도수

구분	신문잡지명	자유주의 빈도수	자유당 빈도수	주요 발간주체 <sup>15</sup>
신문	한성주보	·	7	박문국
	독립신문	·	15	서재필
	황성신문	28	137	남궁억, 나수연, 유근, 박은식, 장지연
	협성회회보	·	1	배재학당학생회
국내 잡지	매일신문	·	2	이승만, 양홍목, 유영석
	제국신문	·	1	이종일, 이승만, 정운복
	대한매일신보(순한글 및 국한문혼용)	13	74	베델, 양기탁, 신채호, 박은식, 장도빈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2	독립협회
유학 생 잡지	대한자강회월보	1	1	대한자강회
	서우	·	1	박은식, 김달하
	대한협회회보	·	2	대한자강회 후속단체
	서북학회월보	·	·	박은식, 김원극
	기호흥학회월보	·	·	이용직, 신기선, 정만조
	호남학보	·	·	호남학회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유학생회
	태극학보	2	·	태극학회
	대한학회월보	2	·	대한학회
	대동학회월보	·	2	신기선
대한흥학보	2	·	대한흥학회	

출처: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http://www.nl.go.kr/newspaper/>);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2: 해외 유학생 발행 잡지』 1·2, 2012, 소명출판.

15 매체의 발간주체 등은 다음 글들을 참조하였다. 김소영(2018), 「한말 독일유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근대국가론: 《共修學報》와 《洛東親睦會學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84; 이태훈(2013),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자기인식과 계몽논리: 1900년대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5.

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등에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라는 번역어 자체보다는 ‘자유당’, ‘리버럴’, ‘자유’ 등의 표현이 서양 정당 체제나 외교적 맥락에서 번역 소개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체제보다 외교·정당 또는 문명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당대에는 ‘자유당’을 관에 대항하여 민권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하여 ‘권리’ 개념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영국의 ‘자유당’은 국가를 공평하고 부강하게 하며 통상조약의 평화적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사적 기반 위에서 1900년대 들어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신문 및 잡지 매체에 등장하고, 러시아와 미국 등 외국의 정치 개혁 사례들을 매개로 한국 지식인들의 자유주의 수용이 보다 체계화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이 시기 자유주의는 단지 외국 제도의 소개를 넘어, 황제권·관권에 대한 비판, 자치의 요구, 관용과 민의의 존중, 종교의 자유, 민권의 보장 등 다양한 의미 층위를 지니며 나타났다.

### 3. 1900-1905년 러시아 제국 모델 시기의 자유주의 담론

1890년대 『황성신문』이 주로 일본, 영국, 독일의 자유당에 주목했다면 1900년대에는 주로 러시아제국의 자유주의에 대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는 『황성신문』의 매체적 상황의 영향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 기사의 취사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관심사를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하겠다.<sup>16</sup>

16 1900년 1월 5일 자 신문부터 外信기사란인 ‘전보’란에 “한성 루터 전특체(電特遞)”라 하여 영국 로이터통신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외신을 공급받게 되었다. 같은 날의 사고(社告)에 “외국 사항에 전보를 직접(直接)치 못하여 보도에 만시(晩時)됨을 한하옵 더니 현(現)에 영경(英京) 루터 전보를 정약통접(訂約通接)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1901년에 러시아에서 학생 소요와 학부대신의 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페테르부르크 어전회의는 황제의 칙령으로 학생을 처벌하고 군대에 보내는 구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후임 학부대신은 폐쇄된 대학교를 다시 개교하고 학생 집회를 열어 시험 연기를 학생들이 결정하도록 하게 하였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없는 자유주의라고 소개하였다. 러시아의 학생 운동은 주로 1899년부터 1905년 사이에 정점에 달했고, 1905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배경이 되었는데,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으며, 니콜라이 2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과 정치적 긴장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sup>17</sup> “몬져 學生의 集會를 開호야 詢議호야 日 곳 試驗을 受호는데 有意호느냐 或 此를 秋季에 延期호기를 欲호느냐 其有意호 바를 決議케 호얏스니 此 | 俄國에서 前例를 未見호던 自由主義인디”<sup>18</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황제 칙령에 반대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한 것, 폐쇄된 대학교를 다시 개교하도록 하는 것 등 봉건 황제권과 대비되는 일종의 관용과 자치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황제가 노예해방 기념일에 종교상의 자유를 허용하고 지방 및 도시에 자치제도를 확장하며 농민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조치를 러시아 황제가 자국 내에서 발전한 자유사상에 대하여 양보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宗教上 自由를 許容하고 地方及 都會에 自治制度를 擴張하고 農民의 強制勞働을 廢止하얏난디 此 上論난 俄帝가 其國內에서 發達하난 自由思想에 對하야 顯著히 讓步”<sup>19</sup>한 것이라 하여, 러시아에서 자유주의사상이 발전해서 황제가 노예해방, 종교 자유, 자치제도, 농민강제노

17 이 시기 러시아의 자유주의운동에 관해서는 조호연(1997), 「1890년부터 1904년 7월까지 러시아에서의 자유주의 운동의 형성」, 『西洋史論』 Vol. 52 참조.

18 「外報 俄國學生騷擾의 後聞」, 『황성신문』, 1901년 6월 17일(이하 밑줄 및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임)

19 「外報 俄國의 自由主義」, 『황성신문』, 1903년 3월 27일

동 폐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즉 종교적 자유, 신분상의 해방, 자치제도, 농민강제노동 폐지 등이 러시아 자유주의의 주요 이슈였음을 보여주며, 황제권에 대항한 자유주의세력의 운동과 자유사상의 확산으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조치가 가능함을 전했다. 또한 『황성신문』은 러시아 황제의 내정개혁에 관해서 자세히 전달하면서 종교의 자유 외에도 민의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지방제도의 개혁 등을 자유주의적 조치로 소개하였다.

俄國農民의 疲弊가 連年尤甚함으로 俄帝께서 其原因을 調査하고 並히 救濟方法을 立히기 爲히야 各地方 各州及中央政府에 委員을 設히야 地方의 意見은 州에 報告하며 州의 意見은 中央政府에 報告한 組織을 成히고 此 中央政府의 委員長은 度支大臣 우이트데 氏가 被任히얏난디 氏난 農業社會에 自由主義를 論入한 意見이 有히야 改革方法을 銳意講求히되<sup>20</sup>

농민들의 피폐한 상황을 중앙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주(州)-중앙정부로 상향식 보고체계를 만들어 지방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자유주의로 소개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 내용으로서 권력이 개인을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제한,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 또한 지방 주민의 의사를 행정체계에 반영하려는 시도, 즉 참정권적 요소 또는 대의 원리의 확대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황성신문』이 이렇게 자세히 황제의 내정개혁을 전달하는 배경에는 대한제국과 황제가 농민들의 피폐함을 살피서 개혁하기를 바라는 의도도 깔려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개혁을 ‘俄國에 新紀元을 開할 것이로되’, ‘該 勅諭의 所言은 極히 賞讚할 것인 故로’<sup>21</sup>라고 하여 이 칙령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된다면 러시아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와, 황제의 친자유주의적 칙령이 칭송받고 있다는 논평을 실었다.

20 「俄國內政의 改革」, 『황성신문』, 1903년 4월 27일.

21 「俄國內政의 改革」, 『황성신문』, 1903년 4월 27일.

1904년에는 국민참정권 획득 문제를 제기한 자유주의를 다루었다. “人民이 參政權을 獲得하도록 政府를 改革함이 必要하다하고 且 國民도 政府를 愈益反對할 意向이 有할뿐더러 官吏와 其他高等職業에 從事한 有力者 等도 亦然하고”<sup>22</sup>라고 하여, 언론과 국민을 구속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특히 자유주의 언론들이 사회를 선도하면서 인민참정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보도하였다. 국민(인민)뿐만 아니라 관리와 고등 직업군 엘리트들 중에서도 정부 개혁을 요청하고 있음을 다루고, 자유주의에 인민참정권이 주요한 요소이며, 피지배자였던 국민/인민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으며 개혁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억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자유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가 “萬若 日本을 勝하면 其 壓制와 賄賂의 公行이 尤甚할터인 則 俄國이 차라리 敗北하야 無用的 滿洲를 捨하고 政體의 改革을 自由主義도 行함이 可하다 ㅎ난디 知識이 有한 者의 意見이 多히 如此할 듯”<sup>23</sup>이라 하여, 만약 러시아 정부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이긴다면 억압과 뇌물이 더욱 심해질 것이니 차라리 패배하여 자유주의 정치체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전하고 있다. 자유주의개혁이 억압과 부패를 일소하고 공정성을 재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한다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패전 후 『대한매일신보』도 러시아에서 국민 대표자의 소집, 즉 대의제가 자유주의로서 제기됨을 보도하였다.

막사과에서 귀족들이 이월 사일에 회의한 결과로 상주안 이건을 결정한 있었는데 그 일건은 보수주의니 전쟁이 종결되고 소란이 진정되기까지 정부 조직을 연기할사를 창도하야 이백구명의 다수가 찬성하였고 타 일건은 占

22 「俄人の 反對政府」, 『황성신문』, 1904년 6월 30일.

23 「俄國政體改革論」, 『황성신문』, 1904년 8월 18일.

유주의를 주장하여 일즉이 국민의 대표자를 소집함을 청구하는자-니얼백 오십삼명의 소수가 찬성하였더라.<sup>24</sup>

패전 이후 러시아 귀족회의에서 보수주의는 정부조직의 유지, 자유주의는 국민 대표자 소집이라는 대의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1900년대 초 한국 언론에 소개된 러시아 자유주의 보도는 당시 자유주의가 단순히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 정치·사회 개혁의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종교의 자유, 노예 해방, 농민 강제노역의 폐지, 상향식 의사 표현 체계의 구축, 국민 대표자회의의 소집 등은 모두 황제권과 정부의 전체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요청이었다. 이러한 보도에서 자유주의는 정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학생·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공정성의 가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시기 러시아 자유주의는 민의의 반영과 권력 분점이라는 원리를 통해 지배 엘리트 내부의 개혁파가 제기한 정치적 요구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 지배체제 내부에서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분파적 개혁의 언어로 기능하였으며, 이는 황제권을 견제하고 자치적 정치 질서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결합되어 당대 한국의 언론매체에 전달되었다.

1905년까지 한국 언론에 소개된 러시아 자유주의는 현대의 정치철학 이론으로는 스키너가 말한 공화주의적 자유, 즉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자유 개념에 가까운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sup>25</sup> 상향식 의사표현 구조, 민의 반영 체계, 대표자 소집 등은 단순한 간섭의 부재를 넘어서, 시민의 자치를 통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24 「막사과회의」, 『대한매일신보』, 1905년 2월 22일.

25 Quentin Skinner (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자 하는 공화적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19세기 공공선을 지향했던 당대 서구의 자유주의 경향이기도 했다.<sup>26</sup>

## 4. 1905-1907년 러일전쟁 이후 영미일 모델로의 전환 기 자유주의 담론

### 4.1. 제도로써 자유주의의 수용

1905년 이후 자유주의 담론은 러시아 사례 중심의 보도를 넘어, 다양한 국가 사례를 매개로 제도적 개선, 경제 정책, 교육 행정 등으로 그 논의가 다각화되었다. 동시에 자유주의는 단지 제도나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념, 도덕, 신앙과 연결된 윤리적·종교적 자유의 문제로 내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1) 자유주의 제도적 담론화, (2) 종교적 자유주의의 정착이라는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905년 이전까지 자유주의 관련 보도는 러시아의 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적 요소와 결합된 정치적 자유 개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 체결 직전인 1905년 8~9월경부터, 러시아의 패배가 현실화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은 보다 다양화되었다.<sup>27</sup> 미국, 영국, 이집트,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이 다루어졌으며, 러시아에서 자유주의는 언론의 자유, 정부의 개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28</sup>

1905년 9월에 실린 岳下散人の 기고문은 ‘자유주의’에 관한 인식이 변

26 헬레나 로젠블랫(2023), pp. 49-104.

27 『황성신문』은 8월 중순부터 “강화 협상 중 일본 우세” 보도를 자주 실었다. 국내 언론과 여론에서 “러시아의 패배가 확정적이다”는 인식은 1905년 8월 중순~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8 「新聞言權의 特許」, 『황성신문』, 1905년 9월 2일.

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자유주의가 전 지구 만국에서 인민의 사상과 국가의 제도, 사회의 규모를 변모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夫自由主義가 自耶蘇新敎中出來하야 全地球通萬國에 人民의 思想과 國家의 制度와 社會의 規模가 一切 改新케 ㅎ 者니 其効力之漸被가 可謂無量 功德이라<sup>29</sup>

이 시기 자유주의가 전 지구 만국에서 인민, 국가, 사회를 변모시킨 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특히 이를 개신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식한 점이 주목된다. 개신교와의 관련성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황성신문』은 경제적 부문에서 은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논하면서 은행이 가진 각각의 개별 신용의 책임을 말하며 국가개입의 최소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정의하였다. “自由主義는 社會의 人民이 如何 ㅎ 銀行을 信任 ㅎ야 自己의 資財를 任置 ㅎ던지 或 該銀行으로 幾許의 資本을 融通 ㅎ던지 皆是一種의 貸借契約에 不過 ㅎ인 則 政府 | 此에 對 ㅎ야 可히 干涉 ㅎ必 要가 無 ㅎ지라”<sup>30</sup>라 하여 방임주의로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은행을 ‘自己’, ‘一個’, ‘一個人’으로 표현하여 독자적인 행위의 주체이며 권리의 주체이자 책임 단위로서 독자성을 명확히 하면서 자유주의와 연관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은행을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기 책임 아래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독립적 경제 주체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은행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사적 자율성과 계약 책임을 지닌 ‘자기’로 구성되는 사회라는 자유주의적 질서 인식을 반영하며, 정부는 이러한 계약 관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방임주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옹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寄書 岳下散人」, 『황성신문』, 1905년 9월 7일.

30 「銀行功效及施措方略(續)」, 『황성신문』, 1905년 5월 13일.

『대한자강회월보』에도 루소의 자유방임적 교육관으로서 자유주의가 소개되었다. “盧騷의 主張은 自由主義는 兒童으로 하여금 其 性情을 放任 하여 天真을 葆케 함”<sup>31</sup>이라 하여, 루소의 주장은 자유주의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정을 방치함으로써 천진함을 보존하게 한다는 것이며, 개인의 성정을 방치하여 개성을 발양하는 교육관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태극학보』에도 국가의 개입을 적게 하고 사인이 주도하는 교육제도로서 자유주의를 소개하고 있었다.

一은 教育을 私人的 事業으로 하여 其 自由發達에 委하고

二는 國家가 教育을 自己의 直接事業으로 하여 總 經營設備는 다 國家 自擔하고

三은 教育을 國家의 事業으로 하여 自己(國家)의 維持는 學校를 設立하고 一方으로는 私人的 經營設備를 許하여 自由發達에 委함이라.

右者 中 一은 自由主義라云는 거신디 英國에서 採用는 바요, 二는 國家主義라云는 거신디 德國에서 採用는 바요, 三은 公私并行主義라云는 거신디 法國에서 採用는 바리<sup>32</sup>

국가가 교육 체계를 정하는 데 있어 결정해야 할 주요 문제는 국가가 교육에 어느 정도까지 간섭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교육을 개인의 사업으로 하여 그 자유 발전을 위임하여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교육에서 자유주의로 소개한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한국 언론은 자유주의를 경제 정책(자유방임주의), 교육 정책(국가 간섭 최소화), 언론의 자유 보장 등 제도적 영역에서의 자유 확장 개념으로 점차 확장해갔다.

31 柳瑾 譯述, 「教育學原理」, 『대한자강회월보』 제10호, 1907년 4월 25일.

32 金鎮初, 「國家와 教育의 關係」, 『태극학보』 제16호, 1907년 12월 24일.

1905년 이후 한국 언론에서 자유주의는 단순한 정치 개혁의 수단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 교육, 언론 등 제도적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며 정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의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유주의를 국가로부터의 독립, 간섭 없는 사적 영역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 4.2. “종교”로서 자유주의

당대 한국 언론과 지식인 담론에서는 자유주의가 단지 제도적 구조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신념과 종교적 세계관에까지 이르는 보다 깊은 차원의 사상적 형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에서는 자유주의가 신의 섭리, 천부인권, 공정과 정의와 같은 종교적 가치와 연결되어 소개되었으며, 기독교적 정의감이나 유교적 도덕론과 결합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도덕적 정당성과 내면의 수양을 통해 실현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수용 양상은 자유주의가 단순히 외국의 정치체제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수입 개념을 넘어, 도덕적 실천의 기준이자 인간 삶의 내면적 질서로 자리잡아가던 전환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황성신문』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원인에 관해 논하면서, 인민의 자유권, 천부인권, 기독교로부터 온 평민정치 등을 통틀어 자유주의라 하고 영국에 저항하고 정부와 인민이 일치단결하게 하는 도(道)로 설명하였다.

古聖이云호되 人類는 均히 同等이라 上天은 一視同仁하사 生命과 自由의 權利를 萬民에게 各各畀與하니……美國獨立은 耶蘇新敎가 善果를 結호이라 蓋其信徒가 自由主義로써 人心을 團結호 故로 赫赫호 國光이 世界를 震動호 하니 使我同胞로 亦其自由主義를 毅然不失호야 一體團結이 確然有立호

면 엇지 家家的 獨立을 鞏固치 못하리오<sup>33</sup>

미국 독립의 원인을 자유주의에서 찾으며, 이때 자유주의는 천부인권 사상, 인류가 평등하며 자유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미국 독립의 원인을 기독교로부터 배태된 것으로 보며 기독교가 일견 자유주의와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상천(上天)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의 권리이며, 그 본질은 기독교의 도덕성과 결합된 것으로 제시된다. 천부인권과 자유 평등은 종교적 가치로 수용되며, 개인이 신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덕적 노력의 대상이 되었다.

1900년대 중반 자유주의는 단지 정치체제의 이상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로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독교적 가치와 긴밀히 결합되어 수용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자유를 다음과 같이 신의 섭리와 연결시켜 서술하였다.

明明上天이 一視同仁 ㅎ사 生命과 自由의 權利를 世界人民의게 各各界與 ㅎ시니 [...] 神聖 ㅎ 宗教 中에 平等과 自由主義를 體念勿失 ㅎ야 天賦 ㅎ 신固 有權을 各其克復 ㅎ면 國家의 自立之權을 維持키 不難 ㅎ리니 一般人民은 念 之勉之 ㅎ라<sup>34</sup>

이 글은 천부인권을 천리(天理)의 본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평등과 자유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며, 이 인간의 천부인권을 “극복”(克復(克己復禮))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즉 유교의 개인의 도덕적 자각과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노력, 즉 하늘이 부여한 고유권도 각자가 자기 수양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교적 도덕 관념 속에서

33 「讀美國獨立史」, 『황성신문』, 1905년 8월 19일.

34 「宗教改革이 爲政治改革之原因」,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11일.

기독교와 자유주의적 자유 평등관을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부인권의 실현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도 자립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평등과 함께 기독교의 종교적 세계관 및 도덕률과 깊이 연결된 자유와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당대 종교의 개념은 현대 종교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도덕과 세계관을 포괄하는 의미였다.<sup>35</sup>

또한, 『황성신문』의 「독미국독립사」(讀美國獨立史)에는 자유권의 핵심을 단지 외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과 자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는 태도를 ‘자신에게 노예가 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자유권을 알지 못하고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기력한 노예가 되기를 감수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되기를 감수하게 된다”<sup>36</sup>는 서술은, 자유의 본질을 외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내적인 정체성과 주체성의 유지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다른 기고문은 ‘자유’를 주역과 중용, 논어 등에도 있었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독립의 의미로 확장/전유하였다.

周易에 曰 獨立不懼라 하고 中庸에 曰 中立不倚라 하니 是는 專就君子之成德者而言之어이와 論語에 曰 三軍之帥는 可奪이로되 匹夫之志는 不可奪이라 하였스니 蓋匹夫者는 個人之謂也오 不可奪者는 不失其自由之謂也니 此非謂人人이 皆有自由之義者乎아 夫自由之原理는 天之所賦라 不獨人皆

35 장석만(2018), 「한국의 근대와 종교 개념, 그리고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한 하나의 사례」, 『종교문화비평』 34 참조.

36 “人民이 自由權을 不知하고 但政府의 命令을 順從하야 軟骨無腸헌 奴隸를 甘作하면 此는 自身の 本分을 不知하는 人民이라 必然家國을 俱忘하고 他人의 奴隸를 甘作히리니 如此헌 人民은 有之何用하리오 하니 至哉斯言이여 爲民上者 不可不知로다 夫以官人言之라도 其立朝事君에 有面折廷爭之風 然後에 方有臨難死節之忠이오 彼阿諛承順하야 君可曰可하고 君否曰否 者는 畢竟 賣國以媚敵하느니 至於 人民에 何獨不然이리오 若不知其自由之權하고 屈從於暴虐政府하야 甘作奴隸於我者가 豈不甘作奴隸於他人乎아” 『讀美國獨立史』, 『황성신문』, 1905년 8월 19일.

有之오 物亦有之하니<sup>37</sup>

자유에 대해서, 『주역』은 ‘독립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중용』은 ‘중립하여 기대지 않는다’고 하며, 『논어』에는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그 뜻을 잃지 않는 것’이며 이 원리는 만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유 개념은 스스로 말미암음, 스스로 독립하여 독자적 뜻을 세움에 가깝다. 즉, 내외적인 독립에 가까운 개념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自由가 非他라 守吾固有之義理 不 服於他人壓制之下者”<sup>38</sup>라고 하여,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내가 본래부터 가진 의리(義理)를 지켜 타인의 압제 아래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자유를 압제받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를 넘어서 능동적으로 ‘의리’의 실천, 타인의 압제에 굴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잠재력을 실현하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 외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내외적인 심리적 독립이라는 의미를 확장하여 압제에 저항할 의지로까지 자유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의리로 표현함으로써 ‘군-신’의 레토릭 안에 담혀있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매일신보』도 천부의 인권, 만인의 자유 평등 원리를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제기하였다.

政府와 人民이 一體團結 國家를 以成 萬一政府가 天理와 人心을 不順 暴虐 政事가 有 其制를 廢 新政府를 創設 此는 古今에 通義오 人事의 常經이라 ……惟願 大韓人民도 平等原理와 自由主義를 覺知 執守 個人의 血로써 社會團體를 固結 革新開

37 「寄書 岳下散人」, 『황성신문』, 1905년 9월 7일.

38 「寄書 岳下散人」, 『황성신문』, 1905년 9월 7일.

明의 事業을 建立 訖 然後에야 生活福祉를 始得 訖리니 捨此以外는 更無他 策이라 訖노라<sup>39</sup>

이 논설은 천부인권과 만인의 자유 평등이라는 원리를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왜 유독 대한의 인민만이 이러한 천부의 권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리를 굳게 지킬 경우,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정부의 핵심 인력이 고작 6~7인에 불과한 반면 전국의 인민은 2천만에 이르는 점을 들어, 민중이 폭정에 대항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상천’, ‘천리’와 같은 유교적 자연질서 개념을 통해 천부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 단지 서구적 법철학의 수입어가 아니라, 유교적 천인합일론적 세계관과도 접속 가능한 사상적 해석들 속에서 자유주의가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자유주의가 내면화된 경로는 유교적 도덕론과의 접속이었다. 『황성신문』 등 유교 지식인 기반 매체에서는 도심을 기르는 수양의 과정과 역사 공부, 그리고 공도(公道)의 실현이 자유의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看除目一日하면 便損道心하고 看史書一日하면 卽長道心”<sup>40</sup> 곧 “관직 임명 기록을 보면 도심이 손상되고, 역사서를 보면 도심이 자란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의 옛 고사가 미국 역사로 바뀌었을 뿐 역사적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내적 수양의 방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지식을 구축하는 방식이 역사적 지식을 내적 수양과 연결하여 사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가치체계에서도 “美國平民政治는 世界萬國의 初有 訖 仁政이라 其戰爭과 政治가 純然 訖 愛國 愛民이오 一點私心이 無 訖지라”<sup>41</sup>라 하여, 미국 평민정치가 초유의 ‘仁

39 「警告大韓全國人民 三」, 『대한매일신보』, 1905년 9월 28일.

40 「讀美國獨立史」, 『황성신문』, 1905년 8월 19일.

41 「讀美國獨立史」, 『황성신문』, 1905년 8월 19일.

한 정치'이고 애국 애민이며 사심이 없다고 하여, '인정'을 우선시하는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유교적 공/사 관념에 기초하여 사적인가 아닌가를 평가하였다.

이는 단지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지식의 습득을 도덕적 내면 형성의 수단으로 보는 유교적 수용 방식이다. 당시 자유주의 담론 역시 단순히 정치체제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심'을 통해 수양하고 성숙해가는 도덕적 질서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와 유교라는 서로 다른 전통은 모두 자유주의를 인간의 도덕적 내면의 질서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는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윤리, 혹은 수양을 통해 완성해야 할 세계관의 일부로 이해되었다.

자유주의가 이렇게 종교 담론으로 수용된 데에는 몇 가지 담론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우선 서구에서 리버럴리티 개념 자체에 있었던 공공선을 위한 희생 등의 뉘앙스가 중세시대 기독교적 색채에 기대어 전파되었고,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개신교적 천부인권의 사상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신성동맹기 가톨릭 보수세력의 반동을 경험하면서 엄밀한 정교분리를 주장했던 유럽대륙의 19세기 자유주의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sup>42</sup> 따라서 이 시기 대한제국 지식층에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반으로 한 미국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대체로 개명유학자였던 기자층과 독자층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유교를 우주와 세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세계관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종교'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유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서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점과 연관된다.<sup>43</sup> 전통적으로 익숙한 지적 체계 속에서 자유주의를 유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 담론이며 동시에 세계관인 것, 다만 새로운 시대의

42 헬레나 로젠블랫(2023), pp. 49-104.

43 '종교' 개념의 도입과 확산에 관해서는 이행훈(2022), 「일제강점기 종교 담론의 유형과 전개」, 『개념과 소통』 30 참조.

새로운 그것으로 인식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 체계와 연관되어, 독자 및 지식대중을 설득할 때도 자유주의를 종교적 담론으로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이 급박한 현실의 대안으로서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 5. 1907년 이후 반군주제 담론으로서 자유주의와 공화의 접속

황제의 강제퇴위, 정미7조약 체결,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이어진 1907년대에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 ‘공화(共和)’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sup>44</sup> 이는 군주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1907년 「韓國의 將來文明을 論함」이라는 논설에는 미국을 “自主自由의 權을 益益發達케하여 完全한 共和國體를 組織함”였다고 보면서, 유교적 공사관념과 도의관을 평등한 전 국민에게 확대한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었다.

我國民이 倫理思想에 最富함은 抑世界의 共知호는바라 如此固有한 特質로써 一切權謀術數는 棄호고 一視同仁의 天意를 體호야 上天의 代命으로 世界의 橫道를 討伐剿誅호고 萬國安全의 方針을 講究호야 平和의 鍵을 秉함이 卽我國民의 特質에 適合호도다..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의 道가 正호 我國民은 正義公道의 神聖호 鈕으로 私慾을 汜濫호는 殘賊을 排除掃蕩하고……道德上의 帝王이 되야 天地大道에 化身하야 萬國民을 警醒호지어다<sup>45</sup>

44 그 이전시기에 나타난 ‘공화’(共和)라는 표현은 1898년 『황성신문』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치이념으로서의 ‘공화주의’(republicanism)라기보다는, 제도적 정체 형태나 외국사례에 대한 ‘수사적 차용’에 가까웠다. 『황성신문』, 1898년 10월 28일; 「검찰관의 일」,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27일; 「講和談判之將來」, 『대한매일신보』, 1905년 8월 11일.

45 「韓國의 將來文明을 論함(太極報照膽)」,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9일.

“일체의 권모술수를 버리고, 일체를 평등하게 대하는 천의(天意)를 체득”하자는 전 인류의 보편적 평등, 즉 인권 사상에 기반한 평등주의적 가치, 자유주의적 천부인권의 사상과 연결되며, “세계의 사사로움 마음을 물리치고, 스스로 도덕상의 제왕이 되어 천지의 대도에 화신”한다는 부분은 국가나 타인의 억압 없이 스스로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윤리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적 이익을 넘어 “정의와 공도의 신성한 검으로 사욕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방침을 강구”는 시민적 덕성, 공동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적 철학, “도덕상의 제왕이 되어 천지의 대도에 화신”하자는 시민들이 도덕적 주체로서 덕성 있는 공적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유주의를 서구 근대 문명사회의 이념으로 받아들여할 것으로 여기며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고는 1907년 이후 보다 적극성을 띠었다.

文明進步의 機關이 日益擴張 해야 自由主義와 獨立精神으로 同聲唱和 하고 聯武齊進 해야 吾人의 希望 하는 目的을 到達 하기로 各自擔任 하는 것이었지 堂堂 大韓民族의 固有 義務가 아니리오 念之勉之이다<sup>46</sup>

자유주의와 독립정신으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대한민족의 고유한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설에서 자유주의와 독립정신은 “국내 동포의 자유 사상(自由思想)과 독립 정신(獨立精神)”을 고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단순히 생계유지를 넘어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것, 학교 설립, 토론회, 금연 단체, 서적 판매소, 신문사 건축 등 교육 및 사회 전반의 근대화와 문명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사사로움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 실천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

46 「讀海朝新聞」, 『황성신문』, 1908년 4월 9일.

로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에도 이 시기 해외에서 창간되는 신문들을 “獨立思想 自由主義를 絶叫호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내용으로 “民族主義를 懷抱하며 國家精神을 發揮해야 壹大法團을 成立해야 文明의 幟를 揭하고 自由의 鐘을 撞”하는 것으로 논하였다.<sup>47</sup> 여기에서도 “자유 생활”을 얻거나 문명과 독립이라는 공공선을 이루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포괄하여 독립정신 자유주의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는 정치이념과 제도로서 자유주의(liberalism)보다 리버럴리티(liberality)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서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에 빠지지 않고 공공선을 위해 희생하는 공민으로서 의미가 살아있었다. 식민화의 위기라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수용된 자유주의는, 유교 윤리에 내재한 공동체주의적인 문화심리적 면모와 ‘自由’의 유교적 해석을 통과하면서 리버럴의 담론 안에 2천년 동안 담겨있던 공공선적이고 공화적인 의미와 접촉을 가능케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09년 이후 공화 담론은 ‘정체’(政體)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점차 ‘인민의 참여가 없는 공화는 가짜 공화’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是貴族의 共和오 人民의 共和가 아니니 嗚乎라 人民이 政權에 無關홀진  
 디 貴族에 在호던지 君主에 在하던지 勿問호고 此가 眞正호 國家 아님은  
 壹般이니라<sup>48</sup>

여기서 공화는 단순히 군주정의 대안 체제나 형식적 정체 유형이 아니라, 인민이 실질적으로 권력에 참여하는 체제이어야만 참된 공화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곧 공화가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권리 담론과 결합하

47 「大東共報의 創立을 賀喜」,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5일.

48 「身家國三觀念의 變遷 續」,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6일.

여, 형식보다 내용, 제도보다 참여를 중시하는 정치적 구상으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시기 자유주의와 공화의 접속은 단지 정치 체제의 형식이나 제도적 이상에 국한되지 않았다. 『황성신문』의 한 논설은 정치 개혁의 근본 조건으로서 ‘종교 개혁’과 ‘내면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마르틴 루터의 개혁을 통해 인류가 정치사회적 자유의 기초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마음속의 노예를 제거하지 않고는 문명 사업을 위한 자유 사상과 자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유교사회 내부의 폐쇄성과 형식주의, 권위주의적 학문 통제를 비판하며, 유력 가문과 보수 기득권의 의견에 억눌리지 않고 자유로운 학술 탐구와 정의로운 정치 질서를 실현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주의자의 출현’을 갈망하는 이 논설은, 당시 자유주의가 제도 이전에 내면의 개혁과 정신적 자유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화가 단순한 정체 형태가 아니라 도덕적 자주성과 인민의 평등성 위에 성립해야 한다는 사상적 흐름 과도 맞닿아 있다.

식민의 위기에 처해서 『대한매일신보』의 「이십세기 신국민(續)」은 당시 한국 사회가 자유주의와 공화의 세계사적 전개를 조망하며, 자유주의를 민족 독립의 전략적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此世界는 自由主義의 世界라 [...] 自由空氣가 東西에 瀰滿호야 自由主義를 向호는 存호며 自由主義를 順호는 強호미 此에 至호엿도다 [...] 專制封建의 舊陋가 去호고 立憲共和의 福音이 遍호야 國家는 人民의 樂園이 되며 人民은 國家의 主人이 되야 孔孟의 輔世長民主義가 此에 實行 되며 루소의 平等自由精神이 此에 成功되엿도다<sup>50</sup>

49 “宗教와 政治의 關係”, 『황성신문』, 1909년 11월 20일.

50 「二十世紀新國民 續」,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3일.

이 논설은 영국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독일의 강대화, 벨기에의 자립, 이탈리아의 통일, 남미 여러 국가의 자주 실현 등은 모두 자유주의 확산의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자유주의가 전제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입헌 공화의 '복음'을 세계에 퍼뜨렸으며,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정치 질서를 가능하게 했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논리는 대한제국기 언론이 자유주의를 단지 외래 이념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식민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실천적 사상으로 전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역』, 『논어』의 자유 개념, 곧 내외적 독립을 통해 미국독립선언서의 자유를 전유함으로써, 한국 전통과 서구 자유주의가 공화적 개념을 통해 접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자유주의는 이 시기 한국에서 유교적 사유 체계와 접촉함으로써, 서구의 리버럴리티(liberalitas)에 가까운 공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이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6. 맺음말

본 논문은 1900년대 초 한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자유주의' 개념의 수용과 전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자유주의가 단지 서구에서 수입된 정치 이념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지적·윤리적 지형 속에서 다층적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자유주의의 도입기였던 1900~1905년경은 러시아를 통과한 전제권력에 대한 저항과 자치의 상상력, 즉 공화주의적 자유의 이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초기 자유주의 수용이 정치개혁의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부터 1907년 전후까지는, 자유주의가 은행, 교육, 언론 등 제도 영역으로 다각화되며,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유

주의의 경제적·제도적 적용 방식이 소개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유주의는 단지 제도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신앙, 인간 이해에까지 관통하는 사상적 질서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유교적 도심과 수양론, 기독교의 천부인권과 정의 개념이 자유주의와 결합되며, 자유는 외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내면과 실천 윤리로서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당대 자유주의는 도덕적·종교적 가치로 전환되었다.

또한 1907년 이후 공화적 요소들이 자유주의와 접속하며, 현실정치 구조에 대한 상상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 시기 언론에서는 자유주의가 공동체로서 전체 민족의 독립을 위한 집단적 실천과 도덕적 각성의 기조로 확장되며, ‘정의’와 ‘공도’ 등 공동체적 언어와의 결합도 강화된다.

1909년 이후 공화 담론의 부상은 자유주의와의 접속을 통해 더욱 명확한 정치적 비전을 갖추게 되며, 도덕적 시민성과 자치적 정체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자유주의는 이 시기 공화의 이념적 기반으로 재구성되며, 두 사조는 한국적 맥락 속에서 대립보다는 접속과 결합의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완결된 형태로 수입된 고정된 이념형으로서가 아니라 유교적 세계관과 윤리·정치 담론 속에서 고유하게 재구성된 사상으로서 재독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자유주의 사상사를 연구함에 있어, 담론 지형의 내부적 역동과 사상 간 접속 구조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그 기원에서부터 근대적 정치제도로서의 자유주의(liberalism)보다는 고전적 의미의 리버럴리티(liberality),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의 함의가 강하게 내재해 있었다. 국권상실의 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자유주의는 유교 전통의 공동체 지향적 가치관과 결합하면서, 서구 자유주의 담론에 내재했던 공화적 시민정신과 공공선 추구의 이념적 요소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유교적 지적 체계를 통한 자유주의의 수용은 서구의 정교분리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양상과 달랐으며, 세계관으로서 종교인 유

교 담론의 특성으로 기독교적 신관과 상제개념이 모순·충돌 없이 혼용되는 성격을 띠었다. 즉 유교가 배타적 종교가 아닌 문화적 세계관으로 인식됨으로써,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적 천관(天觀) 사이의 사상적 절충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자유 개념의 유교적 해석에서 보여지듯이 도덕적 자율성과 압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전제권력 비판의 사상적 기반으로 기능하였으나, 동시에 '의리' 실천이라는 유교의 전통적 담론 구조 안에서 사유되었던 것처럼, 공동체 내부에서의 평등성 문제와 권위주의적 위계 문화와 같은 한계도 동시에 내장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자료

- 『漢城周報』
- 『독립신문』
- 『대한학회월보』
- 『대한홍학보』
- 『대한자강회월보』
- 『태극학보』
- 『협성회회보』
- 『매일신문』
- 『대한매일신보』
- 『황성신문』
-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 논저

- 강명희(2021),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 김석근(2011), 「개화기 '자유주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1.
- 김소영(2018), 「한말 도일유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근대국가론: 《共修學報》와 《洛東親睦會學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84.

- 김종준(2019), 「1900년대 한국 언론의 '자유' 이해와 용법」, 『인간연구』 38.
- 노상균(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7.
- 앤서니 아블라스터(2007), 조기제 역,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 윤대원(2019), 「한말 '立憲政體' 논의와 '민주공화'의 의미」, 『한국문화』 88.
- 윤상현(2024), 「천부인권 개념의 수용과 변용 - 『학지광』을 중심으로」, 『동방학』 50.
- 윤숙현(2020), 「清末民初 '민권' 개념의 변화: '天賦人權'에서 '國民權'으로」, 『역사학보』 248.
- 이기훈(2019), 「3·1운동과 공화주의: 중첩, 응축, 비약」, 『역사비평』 127.
- 이나미(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이태훈(2013),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자기인식과 계몽논리: 1900년대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5.
- 이행훈(2022), 「일제강점기 종교 담론의 유형과 전개」, 『개념과 소통』 30.
- 장석만(2018), 「한국의 근대와 종교 개념, 그리고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한 하나의 사례」, 『종교문화비평』 34.
- 조호연(1997), 「1890년부터 1904년 7월까지 러시아에서의 자유주의 운동의 형성」, 『西洋史論』 52.
- 헬레나 로젠블랫(2023), 김승진 역,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공동체의 도덕, 개인의 윤리가 되다』, 니케북스(Rosenblatt, Helena, *Lost history of liberalism: from ancient Rome to the twenty-first century*).
- Moyn, Samuel (2023), *Liberalism Against Itself: Cold War Intellectual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kinner, Quentin (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5년 4월 24일,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1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8일

## ABSTRACT

# Liberalism in Korean Print Media of the Korean Empire

Yun, Sang Hyun\*

The Intersection of Confucian Religious  
Thought and Republican Ideas

This study examines the recep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liberalism” in Korean print media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seeking to demonstrate how liberalism was not merely a borrowed Western political ideology but was reconstructed within the ethical worldview and political realities of Korean intellectuals of the time.

Liberalism was introduced in the 1900s through reports on reforms within the Russian Empire, presented as resistance against despotic power, peasant emancipation, tolerance and fairness toward the weak, and bottom-up autonomous governance system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example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Italy were introduced, and liberalism was applied as a principle of minimizing state intervention in institutional areas such as banking, education, and press freedom.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at liberalism of the time transcended simple institutional logic and was reinterpreted as moral and religious liberalism through its combination with Christian natural rights thought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yungnam University

and Confucian moral cultivation theor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freedom through Confucian classics emphasized moral subjectivity while showing the constraints of traditional discourse structures based on righteousness theory. On the other hand, it demonstrated uniqu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where Christian values and traditional concepts of Heaven (天觀) were integrated without conflict through the Confucian worldview.

After 1907, with the rise of republican discourse, liberalism combined with values of moral citizenship and political legitimacy as well as institutional demands such as popular rights, self-governance,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developing into an imagination for new political systems. In this process, liberalism strongly exhibited characteristics of liberality that emphasized civic duties for the community and the realization of public good rather than individualistic rights discourse. The collective experience of the crisis of colonization promoted ideological connections between Confucian communal consciousness and republican values inherent in the Western liberal tradition, thereby forming the distinctiveness of Korean liberalism that prioritized national autonomy and communal practice over equality within the community.

**Keywords** Liberalism, Republicanism, Confucianism, Christianity, Liberality